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활용을

농진청,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 힘써야" '축사로'에서 별도 비용 없이 사용신청 후 이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한우, 젓소, 돼지, 가금의 가축더위지수와 이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가축 더위지수는 온도와 습도 정보를 이용해 가축이 더위를 느끼는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이다.

농장주는 매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컴퓨터로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함으로써 더

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더위 스트레스 감각 사료를 급여하는 등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축종별 관리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chuksaro.nrs.g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는 농가의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 가축에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인다.

또한 광물질과 시원한 물을 급여하면 체수분과 미량원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비타민과 유기산제 등을 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료에 적절히 섞어 먹이는 것도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방법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나 물통이 미생물 등에 의해 쉽게 오염되므로 이들에 한 번씩 점검한다.

김상호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과장은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축 생산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3일 단위로 확인 가능한 가축 더위지수를 앞으로는 10일로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오늘부터 28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그 동안 공식이었던 이사장에 대해 14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 이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3~5명)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4일부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비대면 박람회로 中 수출 활력 찾기

aT, 7월 31일까지 온라인 벤티바람회서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 中 대표 SNS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에서 진행 신선우유 등 선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K-FOOD의 중국 내륙 유통시장 개척을 위하여 온라인 벤티바람회에서 한국식품 전용관을 지난 11일 오픈했다.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중국 내 16만여의 식품유통 바이어·중개상 정보를 보유한 대표 온라인 B2B거래사이트의 운영사인 화당원상(上海)이 주최하는 '온라인 춘당교역회(線上春糖交易會) 시즌2'다.

이번 행사는 활성화 사용자가 11.5억 명에 달하는 중국 대표 SNS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에서 진행되며, 코로나 영향으로 출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던 aT 창다오몰류센터를 이용하는 한국식품 바이어 30개사가 참가해, 신선우유와 분유, 막걸리, 유자차, 장류, 과일요거트, 각종 레토르트 식품 등을 선보인다.

지난 3월 21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춘당교역회 시즌1에서는 약 3만개 기업이 참가해, 6천여의 조회 수

와 38만여 건의 구매의향 상담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2 행사의 참가업체는 약 3개월간 독립 온라인 상담점포를 운영하면서 중국 지역의 식품 분야 경소상(도매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커뮤니티 공동구매, 왕홍 경제 등 다양한 업종의 유통채널들과 B2B 거래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aT 창다오몰류센터는 한국식품관 참가업체의 참가비용과 점포개설 과정을 지원하고, 위챗 내 식품관련 포털, 모멘트(朋友圈), 식품전문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한국식품관 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상담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며, 이번 온라인박람회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언택트, 온라인 비즈니스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며 "이번 비대면 온라인 벤티바람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현수 장관, 상하이임 대사와 포스트 코로나 농업 협력 논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상하이임(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상하이임 대사의 예방을 받고 부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상하이임 대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의 농업 분야 협력이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한 후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뉴시스



전북농협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13일 농협지역본부에서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고속도로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제고 협력

도공 전북본부-전북농협, 업무협약 체결...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 공동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권혁)와 13일 농협지역본부에서 상호간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고속도로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은 권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농촌일손돕기, 재능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 △우리 농축산물 애용, 농촌마을 방문·체험을 통

한 활력 도모 △고속도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가치 홍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협의했다.

협약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영농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양 기관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5월중 실시하고, '법국민 농촌일손돕기 운동' 확산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

갈 계획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의 공적기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양 기관이 공유하고 가치 전파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혁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일손돕기,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농업인 실익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 '사실무근'"

조달청 "업체 동의받은 적 없어" 전국 1400여개 생산업체와 6월 말까지 제조 등 계약 상태

조달청이 일부 언론서 보도한 '공적 마스크 가격 인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보건용마스크 구매가격 추가특수조전 개정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200~300원 인하하기로 조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일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제조·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마스크 공급이외의 가격 조정, 매수 등은 조달청이 결정할 권한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에 숨통이 트이면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적마스크 생산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기간도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6일부터 마스크 공적물량(총 생산량의 80%) 계약을 조달청이 전담하고 있다.

조달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매일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 900원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가격을 추가해 주는 등 생산 확대를 유도해 왔다.

현재 전국 1400여개 마스크 생산업체와 다음달 말까지 조달청은 공적 마스크 제조·공급계약을 맺은 상태다.

/뉴시스

'센스있는 비즈니스 스타일링'... 전북은행, 리더스포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2일 군산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제21회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사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진행된 올해 첫 문화행사로, 전북은행은 이를 통해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션특강에서는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셀럽들의 코디네이터이자 패션 전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스타일링미 배선영 대표가 "센스 있는 비즈니스 스타일링"을 주제로, 재미있는 수트의 역사와 사벌의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배 대표는 각종 소품과 의상을 활용한 '패션 장소, 상황에 맞는 스타일링 시연'을 직접 진행하는 등 참석자들과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인을 위한 고품격 스타일링 클래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 격려해 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침체의 늪에 빠진 군산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

은 인문, 경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명사초청 강연과 참석자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전북도민 모두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리더스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경북도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무주에서 '전북·경북 자매결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경북 자매결연 25주년

전건협 전북도회-경북도회, 무주서 기념행사 "코로나19 극복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와 경북도회(회장 이정철)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전북 무주에서 '전북·경북 자매결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이번 기념행사에는 양 도회 임·직원 및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특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경북도회에 더더욱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 자리가 양 도회 회원사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 현재 처한 건설산업의 불황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북·경북간 상호협력으로 전문건설업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회 이정철 회장은 "전북도회의 큰 환대에 감사드리며, 여러모로 어려운 이 시기를 양도회간의 돈독한 우정으로 함께 극복해가자"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와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